

초대석 >> 옛 그림 안내자, 미술평론가 손철주

“옛 그림은 인문학의 보고... 아는만큼 보고, 보는만큼 안다”

인기척없는 빈 산에 꽃이 피고 물이 흐른다. 한 처사가 달을 바라보며 현(弦)없는 거문고를 연주한다. 이렇듯 옛 그림은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 미술평론가 손철주는 옛 그림속에서 사랑을, 흥을, 신명을 을 고집어내 들려준다. 그는 말한다. “(옛 그림은) 인문학의 보고(寶庫)이다. 아는만큼 보고, 보는만큼 안다.”

◇BTS와 조선 재상의 분홍빛 옷=눈앞 스크린에 BTS(방탄소년단) 사진과 조선 정조때 재상(幸相)을 지낸 번암 채제공의 초상화가 나란히 투영되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230년 가까운 시차를 둔 BTS와 조선시대 초상화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까? 굳이 찾자면 둘은 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있을 뿐이다. 바로 핑크빛이다.

미술평론가 손철주(66)는 230년 가까운 시차를 둔 BTS와 채제공을 ‘옷 색깔’로 연결짓는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한다. “홍화를 사용해 천연염색으로 우려낸 색깔들은 그야말로 ‘먼셀(Munsell) 색상표’에도 잘 잡히지 않는 오묘한 어떤 경계의 색을 드러내죠. 시복(時服·공무를 볼 때 입던 근무복)이예요. 관복에 흑단령(검정색), 청단령(푸른색)도 있었지만 이런 살구빛 관복을 입었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는 우리 옛 그림에서 우리가 있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지금 우리 행위의 근원을 찾아낼 수가 있다고 말한다. BTS의 분홍빛 슈트 경우처럼 ‘멋모르고 하는 행위’는 없다. 따져보면 과거의 ‘문화적 유전자’를 이어받았다는 의미다. 영국 행동생물학자이자 진화론자인 리처드 도킨스가 ‘이거적인 유전자’에서 ‘생물학적 유전자’(gene)와 ‘문화적 유전자’(meme)라는 용어로 설명한 바 있다고 부연설명을 한다.

“생물학적 유전자’ 못지않게 ‘문화적 유전자’도 끊임없이 복제되고, 증식되는 거예요. 어떤 지역문화권에 있는 사람은 독특한 묘사와 표현에 익숙하고, 행위가 편안하고, 우리 마음속에 ‘밈’(meme)이 있는 거죠. 은연중에 드러나는 거니까.”

◇전통미술, 옛 그림은 인문학의 보고(寶庫)=그는 옛 그림에 꼭꼭 숨어있거나 품고 있는 이야기를 글(책)이나 말(강연)로 흥미롭게 풀어낸다. 독자나 청중들은 그를 장구삼아 새로운 그림의 세계로 빠져든다. 중앙 일간지 미술담당 기자였던 1998년 1월 펴낸 『그림 아는 만큼 보인다』는 지금까지 독자들과 사랑을 받으며 스테디셀러로 자리잡았다.

그는 ‘이야기로 옛 그림을 풀어나가곤 욕심’을 일찌감치 가지고 있었다. 미술기자로 활동하며 산문에 연재한 ‘손철주의 그림이야기’가 독자들과 사랑을 받았다. 서양화가 김병중 서울대 명예교수가 “이렇게 재미있는데 왜 빨리 책으로 안내느냐”며 때때로 시피 해 첫 책 ‘그림 아는만큼 본다’를 내게 됐다. 그가 언론계를 떠나 학고재 주주로 일하며 미술평론가로 활동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그는 노래와 춤, 음악, 해설이 어우러지는 ‘화통(畫通) 콘서트’를 비롯해 많은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한 ‘화통 콘서트’는 옛 그림을 소재로 관련된 국악 실내악과 해설을 접목한 이색 콘서트다.

“저는 옛 그림을 고전이라고 받아들이고 있고, 인문학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통미술, 옛 미술은 인문학의 보고(寶庫)이고, 고전의 바다에 떠있는 존재입니다.”

그는 강의를 할 때 우리 옛 그림을 인문학적으로 해석하는

BTS-조선시대 그림 공통 분모는 핑크빛 과거의 ‘문화적 유전자’ 이어 받은 것 옛그림에 담긴 화가들의 욕망·기원·동경 세대 달라 ‘눈’ 아닌 ‘마음’으로 감상해야



“월하탄금도”

때 주안점을 둔다. 누군가 ‘고전이랑 게 뭐냐’라고 물으면 “오늘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한 답을 숨기고 있는 옛 것의 지혜”라고 답을 한다. 수백, 수천년전 쓰여진 고전을 지금 읽어야 하는 까닭은 ‘오늘의 난제를 풀어주는 답이, 지혜가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옛 그림 역시 마찬가지이다. 인문학적 차원에서 접근하며 읽어야 한다.

“우리 옛 그림에는 그 시대의 화가와 동시대인들의 욕망과 기원, 동경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술이 욕망의 표현이라고 얘기한다면 (옛 그림에 표현된) 그 시대의 욕망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욕망의 기원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독자들의 눈에 익숙한 해원 신윤복의 그림에서 남녀간 애절한 사랑이나 농염한 욕망을 찾을 수 있다. 신윤복의 ‘월하정인’(月下精人)은 선비와 쓰개치마를 둘러 쓴 여인의 만남을 묘사하고 있다. 데이트 시간은 삼경(밤 11-1시)이다. 화제(畫題)에 “달이 기울어 밤은 삼경인데/ 두 사람 마음 두 사람은 알겠지”(月效夜三更/ 兩人心事兩人知)라고 써었다.

옛 그림에는 화가 자신의 신산(辛酸)한 생애가 녹아들어 있기도 하다. 호성관 최복의 대표작으로 꼽는 <공산무인도>는 인기척 없는 빈 정자만 화폭에 담겨있다. “빈산에 사람없고/ 물흐르고/ 꽃이 피네(空山無人 水流花開)”라는 화제에 작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능호관 이인상이 그린 ‘와운’(渦雲)은 그가 자주 소개하는 옛그림이다. 화가는 가로 50×세로 26cm 크기 종이에 소용돌이치는 먹장구름을 그렸다. 시를 한 수 쓰려다 술잔만 마시고 글을 쓰다보니 구름몽치가 됐다고 화제에 적었다.

그는 ‘속속들이 옛 그림이야기’(자음과 모음 뒤)에서 <와운>을 그린 이인상을 미국 추상표현 화가 잭슨 폴록과 비교해 설명한다.

“1960년대 이후 전 세계를 휩쓸었던 그 유명한 추상 표현

주의에 못지않은 기법이 18세기 조선 화가 이인상의 <와운>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림속 화가의 마음을 쫓아야=옛 그림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눈’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화가의 ‘마음’에 감상자의 ‘마음’을 실으라는 것이다. “왜 마음이 중요할까요? 옛 그림은 오늘날 우리와 더불어 살지 않는 화가들이 그렸기 때문입니다. 옛 사람들이 화폭에 담아놓은 마음을 따라가 보려면 당시 화가의 마음을 쫓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림의 마음을 따라 잡는다는 것은 그 시대의 마음을 찾아가는 자세와 통합니다. 그 마음에 내 마음을 실어야 합니다”(『속속들이 옛 그림 이야기』, 2012년)

그의 그림해설에는 해보다 달된 풍경이 더 자주 등장한다. 조선 중기 이경윤이 그렸다고 전해지는 [월하탄금도](月下彈琴)은 줄이 없는 거문고, ‘무현금’(無絃琴)을 타며 달을 바로보는 도연명을 보여준다.

“소설가 이병주 선생이 ‘햇빛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명명백백한 태양 아래서는 팩트만 있는 겁니다. 으름탄 달이 뜨는 순간, 그때부터 전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2013년 10월 펴낸 ‘사람 보는 눈-손철주의 그림자랑’(현암사) ‘앞서는 글’에서 “내 평생의 병통이 ‘질언거색’(疾言遽色=나오는 말이 급하고 낯빛을 급히 지음)이었다. 고치지 못할 지경에 이르러서야 내 말이 웃자라고 있음을 알았다”고 밝힌다. ‘질언거색’은 그가 까마득한 조상인 모당(慕堂) 손처눌(1553-1634) 선생의 문집을 읽다 마음에 새긴 문구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앞으로 계획에 대해 물었다. 우문현답(愚問賢答)이 돌아왔다.

“제가 지금 내일이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세대입니다(웃음). 매우 창의적인 발상을 한다는 것보다 하던 것을 더 익숙하게 만드는 그런 연령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훗날에도 아마 지금 하듯이 할 겁니다. 글쓰고 강의하는 거죠. 그리고 읽었던 ‘한비자’나 ‘노자’, ‘맹자’같은 고전을 또 읽습니다.” /글·사진=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우리 옛 그림을 인문학적으로 해석하는 손철주 미술평론가. 그는 옛 그림 속 인물들을 생생하게 살려내고, 옛 그림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전통미술과 음악이 만나는 무대인 ‘화통(畫通) 콘서트’. 지난 2011년 첫 선을 보인 이래 매년 정기적으로 손철주 미술평론가가 진행과 해설을 맡아오고 있다. <손철주 제공>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만족도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공신 명사서인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수상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특별 월 회원 모집

신양파크호텔 휘트니스 클럽

개인 (월) ₩ 300,000 **회원특전**

- 사우나, 체력단련장, 수영장 무료이용
- 레스토랑 이용시 10% 할인
- 객실 이용시 50% 할인
- 요가, 에어로빅, 수영 단체레슨 무료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